

한국어 ‘-이/가’와 ‘-께서’가 나타내는 언어의 응결성과 텍스트성 -창세기 1:1의 표현을 중심으로-

전무용*

1. 들어가는 말

어떤 표현에 ‘텍스트성’이 있는지, 어떤 표현이 ‘텍스트다움’을 갖추고 있는지는 “상황에 맞는지”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문법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은 표현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법적으로도 틀리지 않으면서 상황에도 잘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을 때 그 표현은 ‘텍스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

창세기 1장 1절의 첫 문장은 여러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²⁾

『성경전서』 창 1:1 태초에 하느님이 텅디를 창조하시다 (1911)

『奇一역』 창 1:1 태초에 하느님이 天地를 創造하시다 (1925)

『성경개역』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텅디를 창조하시니라 (1938)

『개역』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961)

『개정』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998)

『표준/새번역』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993/2001)

『공역/공역개』 창세 1:1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1977/ 1999)

『성경』 창세 1:1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005)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부장, 한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고영근은 ‘천천히’ 라는 도로 표지판을 고속도로 주행로에 세워 놓는다면 어울리지 않는 표지판이 될 것이고, 같은 표지판을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세워 놓는다면 그것은 잘 어울리는 표지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맞는 표현을 ‘텍스트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영근,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대우학술총서 448,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1999), 138.

2) 이하 본문에서 인용하는 모든 성경은 약자로 책이름을 표시하고, 인용한 각 책은 뒤의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본고에서는 이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를 “하나님이”로 적을 것인지 “하나님께서”로 적을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 공인 번역의 성경 표현에서는 어떻게 해야 텍스트성이 있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하나님이”에 붙이는 주격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국어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성경의 표현에 관심이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³⁾ 그리고 실제로 『공동』⁴⁾과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⁵⁾은 이 말을 “-께서”로 적고 있다. “께서”는 높임말이고, ‘이/가’는 낮춤말이거나 평칭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높임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말로 보인다.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본문의 번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본문을 “하나님이”로 번역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로 적는 것을 반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로 적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906년에 『창세기』가 번역 출간되고,⁶⁾ 1911년에 『성경전서』⁷⁾가 완역된 이후로, 이제까지 백 년 동안 창세기 1장 첫 문장은 “하나님(하느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하느님)-이”로 번역되어 왔다. 옛 번역자들이, 또는 성경 번역의 책임을 맡았던 선교사들이, 우리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이 표현이 적합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백 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이 본문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이 말을 “-께서”로 적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께서”로 적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반문하고 생각할 것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들이 『공동』과 가톨릭의 『성경』에 반영된 것이다. 이 결정 과정에는 국어학자들도 일부 함께 참여하고 동의하였다.

이 논문은, 그런데 정말 백 년 동안이나 한국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은 『개역』 성경의 창세기 1:1 본문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3) 이 본문을 “-께서”로 적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성서공회로 가끔 들어온다. 필자가 이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지면에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전무용(2006) 참조.

http://www.bskorea.or.kr/bskorea/pr/bibkorea/bibkor_read.aspx?idx=348

4)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1977.

5) 『성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6) 『창세기』, 상임성서번역자회, 1906.

7) 『성경전서』, 성서번역자회, 1911.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일까 하는 반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어떻게 적는 것이 “텍스트성”⁸⁾을 획득할 수 있는 표현인지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격조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함께 살피게 될 것이다.

2. ‘-이/가’와 ‘께서’의 응결성 검토

‘-이/가’는 중립적으로 표현된 주격조사이다. 이 조사는 그 앞에 오는 말이 주어임을 지시적으로 나타내 준다. ‘중립적으로’라는 말은 높임이나 낮춤의 개념이 없다는 뜻이다.

- 1) “하나님이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 2)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 3)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 4)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 5)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격조사 ‘-이/가’의 중립성은, 목적격조사 ‘을/를’이 그 앞에 오는 말을 중립적으로 목적어로 지시 지정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가’가 높임이나 낮춤이 없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목적격조사 ‘-을/를’이나 소유격조사 ‘-의’나 특수조사 ‘-은/-는/-도/-만’ 등의 조사들이 높임이나 낮춤의 개념이 없이 중립적인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목적격조사로 쓸 수 있는 말은 언제나 ‘을/를’밖에 없다. 5)에서 “하나님의”라는 말에서도 “-의”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높임의 소유격조사가 없다. 이 말들은 모두 중립적이어서, 그 앞에 ‘하나님’과 같은 말, ‘선생님, 아버지, 임금님’과 같은 어떤 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높임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목적격조사나 특수조사가 없다.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가 따로 없는 것은 서술격조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정 서술의 “-이 아니요”에서는 ‘-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높임의 조사가 없다.

- 6)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개역』 막 12:27)
- 7)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인-다.”

8) 고영근,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137-141.

- 8)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브니다.”
 9) ?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께서-다.”
 10) ?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께서-브니다.”
 11) ?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께서) 아니요?”
 12) ? “하나님께서 사랑이(-께서)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에 ‘선생님, 아버지, 임금님’과 같은 어떤 말이 온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다”나 “-이 아니요”의 ‘-이’ 자리에 대신 올 수 있는 다른 서술격조사는 없다.⁹⁾ ‘-브니다’는 서술격조사의 기본적인 높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청자에 대한 대우를 결정하는 말이다.

목적격조사나 소유격조사나 서술격조사에 높임을 나타내는 다른 격조사가 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주격조사를 생각하는 데에 참고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질문이다. 손윗사람에 대하여 ‘-이/가’를 쓸 수 없다면, 서술격조사에도 ‘-이-다’의 ‘-이-’를 쓸 수 없어야 한다. 이 말에도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 따로 분화되어 있어야 한다. 각각의 격조사들에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가’의 경우에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반론도 가능하다. 다른 격조사는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지만, 주격조사는 예외적으로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 것이며, 이를 표현에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설명도 성립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격조사 ‘-이/가’와 ‘-께서’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김승곤은 ‘께서’가 ‘겨오셔’ 계와 ‘띄셔’ 계의 두 계통에서 발달하였다고 보고, 중세국어에서 그 예들을 찾고 있다.¹⁰⁾

- 13) 빅쵸 참판공겨오셔 선인기 디호오시물 출상호오셔(한동 6쪽)
 14) 우리 부모기셔 이상이 편이호오시던 일을 사 니호니(한동 6쪽)
 15) 노친띄셔 익척이 호 화호오시니(한동 82쪽)

9) 필자는 본질적으로 주격조사 ‘-이/가’ 서술격의 자리에 쓰이는 ‘-이-’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김승곤(1989, 1992b: 16)은 ‘임자자리토’가 ‘비인칭대어뻘씨’에서 발달한 것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김승곤(1992a: 17-38, 208-209)에서는 일부 수정된 의견을 내지만, 옛날 삼인칭대명사 ‘伊’가 허사화하면서 불완전명사 주격조사 인칭대명사(인명 뒤에 오는 접미사) 등에 자취를 남기면서 형성된 것으로 설명한다. 필자도 같은 말이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역할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박영환(1989)은 지시어 ‘이’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고찰한 바 있다. 지시어 ‘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속성과 주격조사 ‘-이’와 서술격조사 ‘-이-’는 기본적인 의미 속성이 같다. 김승곤, 『우리말 토씨연구』(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9); 김승곤,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2b). 김승곤, 『국어 토씨연구』(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2a).

10) 김승곤, 『우리말 토씨연구』(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9), 20.

16) 님께서 뵈다 흐셔든 내 괴로라 (일석본 해동가요 183)

17) 자던오르겨오셔 겨오시고 아래로 어린 아히들을 생각흐옵시다 (명성왕후 언간)

16)에서 ‘겨오셔/겨오샤’로 미루어 볼 때 ‘께서 > 켜서’로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14), 15)에서 ‘괴/피’에 ‘셔’가 와서 ‘괴셔/피셔 > 켜서’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자연스럽다. 필자는 ‘겨오셔’를 “겨+오+셔”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겸양의 ‘오’가 ‘괴셔/피셔’에 삽입되면서 높임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괴/피’의 음이 순화 또는 변화되어서 ‘겨오셔’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¹¹⁾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께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께서: 「조」(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그 대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상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주격조사 ‘가/이’의 높임말이며, 이때 서술어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다.¹²⁾

이러한 설명은 아주 피상적인 설명으로, ‘-께서’의 현상적인 측면의 일부를, 설명은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 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께’를 생각해 보자.

께: 「조」 「1」‘에게 [1]’의 높임말. 「2」‘에게 [2]’의 높임말. 「3」‘에게 [3]’의 높임말.

“선생님께 야단을 맞다”와 “선생님께 드리다”는 둘 다 ‘-에게’의 높임말이다. 같은 말이 다른 맥락에 사용된 것이다. 말하는 이와 말하는 이의 상대자 밖에 있는 제3의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에는 [+인격성]이 있다. 주격조사 ‘-께서’는 여기서 사용한 조사 ‘-께’와 ‘-께’를 공유하는 말이다. ‘-께서’는 제3의 인물을 가리키는 말 ‘-께’에 조사 ‘-서’가 덧붙은 말이다. 물론 현재 국어를 설명할 때에, ‘-께서’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주격조사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독자적인 말로 ‘-께서’를 설명하는 것이, 이처럼 ‘-께+서’의 형식이라고 설명하는 것 과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¹³⁾

11) “겨오시고”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표기 형식이 정립되기 이전에 생긴 ‘이형태’로 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12)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표준국어대사전』(서울: 두산동아, 1999).

서16: 「조」 「1」 ‘에서02「1」’의 준말. 「2」 ‘에서01 [2] ’의 준말.

서17: 「조」 (‘혼자, 둘이, 셋이’ 따위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그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께서’를 일인칭을 나타내는 높임의 주격조사라 하면서, 이 말이 제3자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께서’가 높임의 일인칭 주격조사로 쓰이는 근원적인 이유가, 직접적으로 가리켜 말하지 않고 3자적으로 돌려 말하는 방식에서 온 말이기 때문인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대립적인 설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직접 가리켜 말하지 않고, 3자적으로 돌려서 표현함으로써 지칭 대상과 화자 사이에 일정한 거리 또는 간접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거리를 가지고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은 비인격 체인 명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 18)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 19) ? 선생님의 말씀께서 옳습니다.
- 20) 선생님은 덕이 많니다.
- 21) ? 선생님은 덕께서 많니다.

눈 앞의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하면, 눈 앞의 선생님을 3자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여 높이는 것이다. 표현의 직접성을 피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이 표현에 담긴다. 표현상 심리적인 거리의 확보를 통하여 완곡함을 나타내고, 그 완곡함으로 높임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언어의 이러한 표현 형식은 다분히, 손가락으로 직접 손윗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한국의 문화적인 현상과 상응하는 것이다. 손가락으로 직접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언어에서도 상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께서’는 ‘-이다’라는 서술격조사가 오는 서술문과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 이유가 예문 19) 21)에서 보듯이 ‘-께’나 ‘-서’가 ‘-이다’라는 서술문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 -이다’의 조사 ‘-이’가 지시적인 조사인데 반해 ‘-께’와 ‘-서’와 ‘-께서’ 모두가 지시적인 의미 기능이 있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께서’는 ‘-하다’ 서술문이나 동사와 어울려야 자연스러운 호응이 된다. 특히 ‘-서’ 때문에 다음에 오는 서술어가 ‘-이다, -답다, -스럽다’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⁴⁾

13) 이익섭(2006, 재판 8쇄: 319)은 “존칭의 주격조사 ‘께서(씨서)’는 말할 것도 없이 존칭의 여격조사 ‘께’에 ‘서’가 결합한 형태다.” 하고 단정하고, 家禮와 捷解의 예를 들고 있다. “曾祖께서 나시면(가례 1:17)”, “信使씨서도 최축히서(捷解 5:16). ‘께서’와 ‘씨서’는 사용된 환경과 상관 없이 달리 표기된 것으로, 표기법이 정립되기 이전의 단순 이형태로 보인다.

‘-께서’가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 형식이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보다는 “하나님께서”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은 일단 옳다. 그러나 이 확인이, 이 표현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이/가’를 높임의 자리에 쓴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말이 높임의 자리에는 쓸 수 없는 낮춤의 말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2) 周國大王이 幽谷에 사르샤 帝業을 여르시니(용 3)

23) 우리 始祖 | 慶興에 사라샤(용 3)

24) 님금이 賢커신마른(용 84)

25) 今日 3 + 如來 11 大光明 1 放 1 1 1 1 1 / 今日에 如來이 大光明을 放 1 시온든 / 今日에 如來가 大光明을 放하시는 것은 (舊譯仁王經 2, 23)¹⁵⁾

26) 子 | 淵은 사티근심업스니는 그오직 文王 | 신더 王季로써 父삼으시고 武王으로써 子삼으시니 父 | 作 1 하시닐 子 | 述 1 하시니라¹⁶⁾

22)는 “-이 -샤 -시니”로 이어져서, 서술어에 높임의 형식이 있는 문장이고, 주어 “周國大王”도 내용상 높여야 할 성격의 주어이다. 주격조사로는 “-이”를 쓰고 있다. 23)은 “- | -샤”라는 주어 서술어 형식의 문장이어서, 서술어에 높임의 형식이 있고 주어 “우리 始祖”도 높여야 할 대상이다. 여기도 주격조사는 ‘- | ’를 쓰고 있다. 24)는 “-이 -시-”의 관계로, 서술어에 높임의 형식이 있고 주어 “님금”도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주격조사는 “-이”를 쓰고 있다. 25)의 “如來”도 높여야 할 대상이고, 서술어에 높임의 형식인 ‘-시-’가 있는데, 주격조사는 “- 11 (이)”를 쓰고 있다. 12세기 국어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한국어가 본래 이러한 자리에 ‘-이’를 쓸 수 있는 언어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6)은 유교적 신분질서가 엄격하던 조선시대의 언어이고, 유학의 조종인 공자

14) “아버지께서 대학생이다, 선생님께서 크다, 어머니께서 예쁘다”와 같은 말은 흔히 쓰이기는 하지만, 문법성이 의심스럽게 느껴진다. “-께서”가 붙는 말이 올 때는 뒤에 동사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서정수는 “김선생님께서 손이 크십니다, 김선생님께서 말씀이 유창하십니다. 김선생님께서 태이 머십니까?”와 같은 문장을 의심 없이 예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서’와 관련하여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수가 혼자서 공부한다.’는 자연스럽지만, ‘? 철수가 혼자서 학생이다.’와 같은 말은 자연스럽지 않다. ‘-서’가 동사와 어울리는 성질이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서정수, 『존대법의 연구-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서울: 한신문화사, 1984; 1988), 170.

15) 남풍현은 이 글의 연대를 12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남풍현, 『國語史를 위한 口訣 研究』(서울: 태학사, 1999), 96-97, 166, 362.

16) 김혁제 교열, 『原本備旨中庸』(서울: 명문당, 1978), 56.

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서 볼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또 모든 유교 경전의 언어에서 공자가 주어로 나올 때 주격조사 ‘-이’를 썼다는 점은 ‘-이’가 낮춤말 또는 적어도 반말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한학을 배울 때, 우암의 후손이신 필자의 스승¹⁷⁾께서는 “自 | 曰”을 “재왈”로 읽었고, “子 | 굴으샤디”를 설명할 때에는 “공자께서 가라사대”로 풀어 주셨던 기억이 있다. “공자께서”로 풀어주신 것은 공자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을 담아서 말 씀하셨던 것이고, 본문이 “子 | 굴으샤디”에서 사용한 “굴으샤디”는 “굴오디”의 높임의 표현 형식이다. 모든 유교 경전들이 높임의 형식의 서술어와 상응하는 자리에 주격조사를 ‘-이’로 썼다는 것은 이 말이 적어도 낮춤말이 아니라는 증거라 할 수 있고, 높임 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임을 나타내 준다 할 수 있다. “공자께서 가라사대”로 풀어 주셨던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께서’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이정복(2002)은 1993년 1월에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150명을 대상으로 ‘경어법 형식의 기능 부담량을 조사하고 있다.¹⁸⁾ 이 조사에서 79명 52.7%가 “선생님이 댁으로 가셨다”는 표현을 선택했고, 71명 41.3%가 “선생님께서 댁으로 가셨다”는 표현을 선택했다는 것을 통계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께서”에 관심을 둔 조사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조사에서 현대 한국어에서도 “선생님께서”와 함께 “선생님이”가 큰 제약 없이 높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선생님이”가 “선생님께서”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흥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언제 어떻게 이 말을 구분해서 사용할 것인지 살펴보겠다.

3. ‘-이/가’와 ‘-께서’의 텍스트성 검토

여기서는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대로, 다음 두 예문에서 주격조사 ‘-께서’와 ‘-이/가’ 두 표현의 텍스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7)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8)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먼저 이 말들이 한국어의 발화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사용되는

17) 석정 송각현 선생님께 유교 경전을 배운 적이 있다.

18) 이정복, 『국어 경어법과 사회언어학』(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2), 47-48.

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상황에 따른 표현의 차이들을 성경 번역을 할 때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9) (창원=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 대통령이 27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 자원봉사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¹⁹⁾

위 기사문에서는 “대통령” 다음에 ‘-이’를 쓰고 있다. 모든 신문 방송 등의 표현들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반말을 한 것일까?

30) “박 대통령이 1960년대 말 양조장, 정미소를 하는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인 만큼 제조업을 해보라”고 권해 기계금속업을 하게 됐다고 기계 금속업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²⁰⁾

이 문장은 화자가 가장 존경한다는 대통령에 대해서 말한 것을 옮겨 놓은 기사이다. 여기서도 ‘-께서’를 쓰지 않고 ‘-이’를 썼다. 한국 사람 어느 누구도 왜 여기서 ‘-께서’를 쓰지 않았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화자가 ‘-께서’를 썼던 것을 기사가 기사화하면서 ‘-이’로 바꾸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든 저렇든 아무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아무에게도 ‘-께서’를 쓰지 않는다.

- 31)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였다.”
- 32)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 33)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 34)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이 네 문장 모두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표현이다. 역사 교과서나 논문이라면 당연히 31)번 문장을 사용할 것이다. 만일 세종대왕을 개인적으로 존경

19) 인터넷에서 임의로 검색한 기사 문장.

<http://tab.search.daum.net/dsa/search?w=news&q=%B4%EB%C5%EB%B7%C9&repro=0&period=0&orq=&lpp=10&page=2>

20)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세종대왕,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태길 학술원 회장의 말을 전하는 기사 내용이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people/200710/18/munhwa/v18521507.html>

하는 한글학자가 한글날 공중 앞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세종대왕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을 담아서, 33)번 문장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2)번 문장과 같이 개인적인 존경은 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했더라도 아무도 틀렸거나 어색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31)번 문장과 33)번 문장의 차이는 지칭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33)번 문장에는 말하는 이의 개인적인 존경이 고백적으로 담겨 있다. 말하는 이가 개인적으로 지칭 대상을 존경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당연히 ‘-께서’를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뜻을 담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 진술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당연히 31)번 문장이나 32)번 문장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세종대왕에 대한 개인적 존경을 담더라도, 표현되는 현장에 청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논설문이나 수필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맥락이라면 33)번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텍스트의 텍스트성은 표현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 표현인지와, 그 내용을 표현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가’를 쓰지, ‘-께서’를 쓰지,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표현된 텍스트의 텍스트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개인적인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둘러서 말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지시적으로 말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창세기(創世記)”는 한국에서 역사 기록으로 받아들였다. “-기(記)”라는 책의 이름이 장르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²¹⁾ 창세기 1장의 표현은 말하는 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진술의 목적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은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견해, 주관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이 진술의 목적이 아니다. 진술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 이 진술의 목적이 아니다. 창세기 1:1 본문의 진술은 우주 창조의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진술의 목적이다. 우주 창조의 웅장한 대 서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사이다. 역사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성격의 기사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술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술의 목적에 맞는 문체로 표현해야 텍스트성을 성취할 수 있다.

21) “창세기(創世記)”에서 사용한 “記”라는 용어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개념의 장르적 개념이 포함된 용어이다.

4. 『성경전서』(1911)와 『개역』(1938)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사용한 ‘하나님’에 대한 주격조사

『개역』 성경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을 “-이”로 적고 있다.

35)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개역』 창 3:12)

『표준』과 『새번역』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서”로 번역하였다. 『공동』은 “당신께서”로 번역하였다.²²⁾

『개역』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와 “하나님께서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로 적은 곳은 모두 762회이며,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물론 객관적 진술에서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서”를 쓴 곳도 있다.

『개역』 왕상 10:24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개역』 대하 9:23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서”로 적은 곳은 50회이며²³⁾,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을 지칭하여 말하는 입말 안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음 표에서 『개역』에서 “하나님께서서”로 사용한 본문이 『성경전서』(1911)와 『성경개역』(1938)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비교하여 보았다. 1911년 『성경전서』(구역)에서 호응하는 서술어를 함께 찾은 것은, 이 말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알고자 함이다.

22) “-께서”의 문제와는 별도로, 하나님에 대한 2인칭으로 “당신”을 쓸 것인지는 또 다른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절대로 ‘당신’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도 있고,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적이 있다. 전무용, 「성서한국」 50:2, 2004년 여름;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호(서울: 대한성서공회, 2006:10), 96-122.
http://www.bskorea.or.kr/bskorea/pr/bibkorea/bibkor_read.aspx?idx=260

23) 사용 빈도에 대한 조사는 모두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한 <CD-Rom 성경>의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책 장절	1911년 성경전서(구역)	1938년 성경개역	비고
창 28:22	없음	하나님씩셔	서술
창 43:14	하느님이-흐시기를	하나님이	대화
신 1:41	하느님이-명흐신대로	하나님씩셔	대화
왕상 10:24	하느님이-주신바	하나님이	서술
대하 9:23	하느님이-주신바	하나님이	서술
막 12:26	하느님씩셔-말씀흐신	하나님씩셔	대화
눅 1:32	하느님씩셔-주시리니	하나님씩셔	천사의말
눅 7:16	하느님씩셔-도라보신다	하나님씩셔	대화
눅 16:15	하느님씩셔-아시나니	하나님씩셔	대화
눅 18:7	하느님씩셔-텍흐신	하나님씩셔	대화
행 2:22	하느님씩셔-흐심이	하나님씩셔	대화
행 2:24	하느님씩셔-풀어주셧스니	하나님씩셔	대화
행 7:25	하느님씩셔-구원흐심을	하나님씩셔	바로 앞뒤의 17, 20절은 같은 맥락인데, ‘-이’를 사용함. 설교문
행 10:15	하느님씩셔-흐신	하나님씩셔	천사의 말
행 10:28	하느님씩셔-그르치샤	하나님씩셔	대화, 35절은 같은 맥락인데 ‘-이’를 사용.
행 11:18	하느님씩셔-주샤	하나님씩셔	대화
행 13:34	하느님씩셔-살니샤	하나님씩셔	32절은 같은 맥락인데 “하느님이”를 썼다.
행 27:24	하느님씩셔-주셧다	하나님씩셔	대화
롬 1:19	하느님씩셔-보이셨나니라	하나님씩셔	서신
롬 1:24	하느님씩셔-내여브려두샤	하나님씩셔	서신
롬 1:26	하느님씩셔-내여브려두시매	하나님씩셔	서신
롬 1:28	하느님씩셔-두셧스니	하나님씩셔	서신
롬 2:6	하느님씩셔-보응흐시디	하나님씩셔	서신
롬 2:11	하느님은-아니흐시는도다	하나님씩셔	서신
롬 3:6	하느님씩셔-심판흐시리요	하나님씩셔	서신
롬 3:25	하느님씩셔-세우시매	하나님씩셔	서신
롬 5:8	하느님씩셔-나타내셧스니	하나님씩셔	서신
롬 9:18	하느님씩셔-흐시는니라	하나님씩셔	서신
롬 10:9	하느님씩셔-살니심을	하나님씩셔	서신
롬 12:3	하느님씩셔-눈화주신대로	하나님씩셔	서신
롬 15:15	하느님씩셔-주심이니	하나님씩셔	서신
롬 15:33	하느님씩셔-계실지어다	하나님씩셔	서신
롬 16:20	하느님씩셔-흐시리라	하나님씩셔	서신

책 장절	1911년 성경전서(구역)	1938년 성경개역	비고
고전 1:20	하느님피셔-흐신	하나님피셔	서신
고전 1:21	하느님피셔-깃버하심이로다	하나님피셔	서신
고전 1:27	하느님피셔-흐시며	하나님피셔	서신
고전 1:28	하느님피셔-페흐시나니	하나님피셔	서신
고전 2:12	하느님피셔-주신	하나님피셔	서신
고전 9:9	하느님피셔-넘려흐심이나	하나님피셔	서신
고후 4:6	하느님피셔-흐섯느니라	하나님피셔	서신
고후 5:1	하느님피셔-지으신	하나님피셔	서신
고후 5:19	하느님피셔-게시샤-흐시며	하나님피셔	서신
고후 6:16	하느님피셔-굴으샤디	하나님피셔	서신
고후 8:1	하느님피셔-주신	하나님피셔	서신
고후 13:7	하느님피셔 기도해야	하나님피셔	서신
히 1:5	하느님피셔-흐섯스며	하나님피셔	서신
히 2:13	하느님피셔-흐섯스니	하나님피셔	서신
히 6:3	하느님피셔-허락하시면	하나님피셔	서신
요일 5:10	하느님피셔-지으신	하나님피셔	서신
계 7:17	하느님피셔-써셔주심이라	하나님피셔	서신

구역의 구역에서는 “하느님피셔”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성경전서』의 신약에서는 “하느님피셔”가 45회나 사용되고 있다. 『성경개역』(1938)의 구역에서는 “하나님이”가 539회가 사용된 데 비해서 “하나님께서”가 2회 사용되었는데, 두 곳도 『성경전서』에서는 모두 “하느님이”로 표현했던 본문이다. 『성경개역』(1938)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가 206회가 사용된 데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46회를 사용하였다. 위 표에서 보면 『성경개역』에서 “하나님께서”로 표현한 부분이, 이전의 『성경전서』에서는 대화의 표현에서도 창 43:14처럼 “하나님이”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또 대화에서도 세 번역이 모두 “하나님이”로 번역한 곳들이 있다. 이는 구역과 신약의 번역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수도 있다. 신약의 각 책의 번역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더우드: 누가복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아펜젤러: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후서,
게일: 요한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요한계시록(?)
스크랜튼: 로마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레널즈: 대살로니가전 · 후서²⁴⁾

또 그 번역자들을 도왔던 한국인들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²⁵⁾ 각 역자별로 선교사와 한국인이 어떻게 짝을 이루고 있는지 『대한성서공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²⁶⁾

최병헌-스크랜튼, 조한규-아펜젤러, 이창직 · 정동명-게일, 김명준-레널즈 · 언더우드, 홍준-트롤로프, 송덕조-언더우드.

신약의 각 책의 번역 문체의 특징을 역자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 있는 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전서』 구약의 번역도 여러 번 역자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살펴보면, 아펜젤러, 레널즈, 언더우드, 트롤로프, 게일, 피터스, 크랩, 사이드보텀, 이창직, 김정삼, 이승두 등이 여러 해 동안 번역을 하였다. 신약의 번역이 완료되고 난 후에 구약의 번역이 시작된다. 이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한국인 번역자들도 상당한 성경 번역 경험이 축적되고 난 후에 구약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가 나름대로 신약보다 훨씬 더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구약의 한국어 표현의 일관성이 신약보다 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⁷⁾

- 36)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개역』 마 3:9)
- 37)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개역』 마 6:30)

이는 『개역』 성경 안에서 이 말이 통일성 없이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절대 다수의 회수가 “하나님이”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연히 여짜다 한두

24) 이만열 옥성득 유대영, 『대한성서공회사』(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45.
 25) 전무용은 『성경전서』(1911)의 대명사의 용법을 고찰하면서, 구약의 경우에 각 책에 따라서도 한국어 대명사의 사용이 달랐던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전무용, “‘-이/가’와 ‘-께서’의 문제-” 『성서한국』, 서울: 대한성서공회, 52:1, 2006 봄).
 26) 이만열 옥성득 유대영, 『대한성서공회사』, 46.
 27) 『대한성서공회사』를 보면 구약의 각 책별 번역자도 알 수 있다. 『성경전서』의 한국어 문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역자별 차이가 어떻게 성경의 한국어 표현에 차이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만열 옥성득 유대영, 『대한성서공회사』, 70-77).

번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도행전 7:19-25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주격조사 없이 20절은 “하나님 보시기에”²⁸⁾처럼 썼고, 17절은 “하나님이”로 썼고, 25절 “하나님께서”로 썼다. 이렇게 두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개념 구분이 없이 이 말이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개역』 행 7:17-25) 1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 20 그 때에 모세
 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
 리우더니 … 25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
 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혼용 양상은 『성경전서』에서부터 있었던 혼용이 『개역』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러한 혼용 양상이 보인다. 이러한 혼용은 찾아보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⁹⁾ 같은 맥락 안에서 이유 없이 “-이”와 “-께서”가 혼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께서”가 사용된 본문의 서술어는 모두 동사여서, 명사 서술어와 호응하는 자리에는 “-께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전서』 행 13:33-34

32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게 날으노니 **하느님이** 여러조상의게 허락
 한 것을 33 우리 조손의게 응허게 하사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스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하였스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나했다 하셨고 34
 또 **하느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썩는디 니르시아니 할 것을
 가르쳐 줄으샤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변하지아니한 은혜로 너희게 주
 리라 하시고

『개역』 행 13:32-34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 곧 **하나
 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
 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성경전서』에서부터 『개역』까지 모두 이렇게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두

28) 『성경전서』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표현했다.

29) 창세기 28:20-22 등.

말이 맥락에 따라서 혼용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체의 통일성 또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칙을 가지고 맥락에 따라 구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여호와가”와 “여호와께서”의 사용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직접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쓰일 때와는 차이가 있다. 성경에서는 중립적인 서술문에서도 “여호와가”로 쓰인 예는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가리켜 말할 때에는 아래 38) “나 여호와가…”처럼 ‘-가’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는 아래 39)와 같이 “여호와”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바로가 말할 때 “여호와가 누구관대…”처럼 “여호와가”를 쓴 적이 있다.

- 38)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개역』 창 18:19)
- 39)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화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개역』 출 5:2)
- 4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찌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개역』 출 11:9)

그 외에는 성경 전체에서 모두 40)과 같이 “여호와께서”로 ‘-께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실명이 거명된다는 점에서 “+인격성”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유학자들이 유교 경전을 강독할 때 “공자께서”로 했다고 한 점과도 통하는 현상이다. 현실 언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난다. “000 대통령이…”와 같이 쓰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대통령 000이/가…”처럼 말하는 일은 드물다. 이름 뒤에 직접 ‘-이/가’를 쓰는 경우는 한국어에서 친밀어 또는 비격식어인 경우에만 사용이 된다. 1911년의 『성경전서』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사용되는 서술문에서 모두 ‘-께서’를 쓴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름 뒤에는 ‘-이/가’를 쓰는 것이 인식 속에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님이”를 거침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와 “여호와가”는 한국인들에게 전혀 달리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는 말

우리말 조사 ‘-이/가’는 그 앞에 오는 말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지시어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가’는 ‘-을/를’이나 ‘-의’와 같은 말이 높임의 형식이 없이 중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중립적으로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이다. 이에 비해서 ‘-께서’는 그 앞에 오는 말을 3자적으로 돌려서 가리킨다. 돌려서 말하는 완곡함으로 대상을 높이는 형식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께서’는 틀린 표현이 아니다. 정중하게 격식을 갖추어 표현한 좋은 문장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창세기 본문이 객관적인 사실을 중립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서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이”는, ‘하나님을’이나 ‘하나님의’와 같은 표현에서 사용하는 ‘-의’나 ‘-을’처럼, 높이거나 낮춤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이다. 반말이 아니다. 이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성경의 일반 본문에서는, ‘하나님’ 다음에 주격조사를 쓸 때에, 따옴표 안에 직접인용으로 표현되는 대화문에서는, 말하는 이의 존경을 담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맥락이라면, “하나님이”보다는 “하나님께서”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그러나 중립적으로 서사적 기술을 하고 있는 서술문에서는 “하나님이”로 적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뒤에서는 일인칭으로 서술된 부분 외에는 모두 주격조사를 “-께서”로 적고 있다. 이는 손윗사람의 이름 뒤에서는 “-이/가”를 쓰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응결성, 텍스트성, 주격조사, 높임말, -께서.

Cohesiveness, Textuality, Subjective Postpositions, honorifics, -kkeseo.

*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奇一역』, 『신역신구약전서』, 경성: 기독교창문사, 1925.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성경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1938.
- 고영근,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대우학술총서 448,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1999.
- 국립국어연구원 위음,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김승곤, 『우리말 토씨연구』,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9.
- 김승곤, 『국어 토씨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2a.
- 김승곤,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2b.
- 김혁제 교열, 『原本備旨中庸』, “중용언해”, 18장, 서울: 명문당, 1978.
- 남풍현, 『國語史를 위한 口訣 研究』, 서울: 태학사, 1999.
- 박영환, “지시어 ‘이’의 의미 기능”, 한남어문학 15호, 대전: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9.
- 박영환, 고려대 박사논문, “국어 지시어의 연구”, 1990.
- 박영환, 『지시어의 의미 기능』,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1.
- 서정수, 『존대법의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서울: 한신문화사, 1984, 1988.
- 이만열 옥성득 유대영, 『대한성서공회사』,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이익섭, 『국어학 개설』, 서울: 학연사, 2006, 재판 8쇄: 319.
- 이정복, 『국어 경어법과 사회언어학』,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2.
- 전무용, “‘-이/가’와 ‘-께서’의 문제-”, 『성서한국』 52:1,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6 봄.
-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호,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6:10, 96-122.

<Abstract>

Linguistic Cohesiveness and Textuality Represented by Subjective Postpositions, ‘-ee/-ga’ and ‘-kkeseo’ in the Korean Language: Focusing on the Textuality of Genesis 1:1

Mr. Moo-Yong Jeon
(Korean Bible Society)

Although a sentence is grammatically correct, it may or may not be a suitable expression for a given situation. An expression can be regarded to have ‘textuality’ when a sentence is not only grammatically correct but is also appropriate for the situation. In the Korean language, there are subjective postpositions, ‘-ee/-ga’ that neutrally indicate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and also an honorific subjective postposition, ‘-kkeseo’ which is used to signify respect for persons of greater seniority. Even when these subjective postpositions are used correctly in terms of grammar, they can become awkward or suitable expression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y are used.

In this paper, I have studied whether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or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would be a better translation of Genesis 1:1. Among the currently available Korean Bibles, there are translations that have selected ‘-ee’ and also ones that have selected ‘-kkeseo’ as the subjective postposition. In terms of grammar, neither postposition is grammatically wrong. Nevertheless, it is still important to thoroughly examine which expression better suits the situation because opinions on this matter differ among Koreans.

To this end, I have reviewed diachronically the contexts in which these two subjective postpositions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while studying the use of these two postpositions in th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as well. Considering that Genesis is an epical record about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emphasis was placed on determining a better postposition to the term, “hananim” in relation with the literary genre of the book.

If it is a conversational context where a person from Genesis is talking to God, ‘hananim-kkeseo’ may be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personal reverence toward God. Genesis 1:1, however, is not such a text; instead it is a sentence written with the purpose of stating an objective fact. Because of this,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use the neutral subjective postposition, ‘-ee’ after the term, ‘hananim’.